"공수처 출범 시기 놓치지 않을 것"

민주 이낙연 대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추미애 의혹 오보 많아 · 윤미향 의혹 사실 다툼 여지"

"이해찬, 지독할 만큼 시스템 중시" 상왕정치설 일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치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발목잡기를 이어갈 경우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은 관련 보도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거듭 일축했으며,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관해서도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공수처 출범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법이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라며 "(야당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빨리 내달라"며 "선정 작업을 하신다니까 저희는 기다리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저희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계속 심의를 해나가겠다"라는 방침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협치라고 해서 어느 한쪽의 의견대로 끌려다니는 것은 협치가 아닌 굴종"이라며 "원래 7월이 (공수처) 출범 시기였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다. 아무리 정치하는 곳이라지만 법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정치냐. 진정한 협치는 지킬 것은 지켜가며 합의를 이루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게 진정한 협치"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 군 휴가에 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음을 강조하며 엄호 태세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이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믿고 있고 가능하면 결과를 빨리 받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당사자의 거처와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한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등에 관해서는 "언론에 보도됐던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의혹이 기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기도 어디에 있는 집이 기소도 안 됐다"며 "6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이 그것을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윤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의 제명 결정은 "안타깝고 참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으며,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진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제명 가능성에 관해서는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와 관련해서는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있게 결정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와 이해찬 전 대표의 상왕정치 등에 대한 우려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에 관해서는 "이해찬 대표는 지독할 만큼 시스템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찬 전 대표는) 공적인 감각, 이 전 대표의 말대로라면 퍼블릭 마인드(Public Mind·공적 의식)가 굉장히 강한 분이다. 그런 말(상왕정치)이 현실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친문 팬덤'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당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는)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되면서 동시에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놀라운 게 있다"며 "흔히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곳이 권리당원인데 각 후보의 권리당원 지지율과 일반국민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온다. 강성 지지자가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당의 대처나 지향성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이 될 수도 있다"며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박덕흠 등 정조준' 민주, 정치개혁TF 출범

"국회 차원 재발방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가 23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박덕흠·윤창현·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했다.

TF단장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 들어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부정부패와 이해충돌에 관한 당사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촉구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입법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TF는 신동근 단장을 비롯해 천준호·진성준·이정문·김남국·이소영 의원, 박성현 부대변인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진성준·천준호 의원의 경우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우리당)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국민적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비슷한 예인 김홍걸 의원은 이미 제명했다"며 "(조 의원 조치는) 전혀 거론도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책임지고 제명하길 요청한다. 또 박덕흠·윤창현 의원도 그에 맞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혹제기와 문제 의원에 대해선 자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징계조치를 해야겠지만 최소한 윤리의식을 져버린 정치인은 당 차원의 해결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TF의 취지"라며 "민주당 정치개혁TF도, 국민의힘도 다함께 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뉴시스

전북 공공기관 K-뉴딜 준비 어떻게?

민주 전북도당, 25일 당-정-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위원장)은 오는 25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지역 당, 정, 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북 공공기관 K-뉴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K-뉴딜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 진행 상황 점검 및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K-뉴딜 준비와 대책을 공유하고 민주당,전북도,공공기관의 협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이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형 뉴딜 진행 상황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어 김대순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홍성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유수영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김택진 한국국토정보(LX)공사 공간정보본부장,이영미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순으로 각 공공기관 별 K-뉴딜 준비 및 대응,그리고 지역 내 협업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마무리 종합토론으로 민주당,지자체, 공공기관 협업과 윈-윈 전략에 대해 안호영 위원장이 좌장으로 임성진 공동위원장과 최낙관 사회적 분과 위원장 발표에 참여한 5개기관 발표자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민주당, 전북도, 공공기관이 협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전북형 K-뉴딜 청사진이 준비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되며 전북도당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들, 수해 지역 재난구호금 전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원하는 재난구호금 1,000만원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에게로 전달됐다.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23일 열린 전달식은 황영석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기탁금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내 6개 시·군 지역의 수해 가정 등에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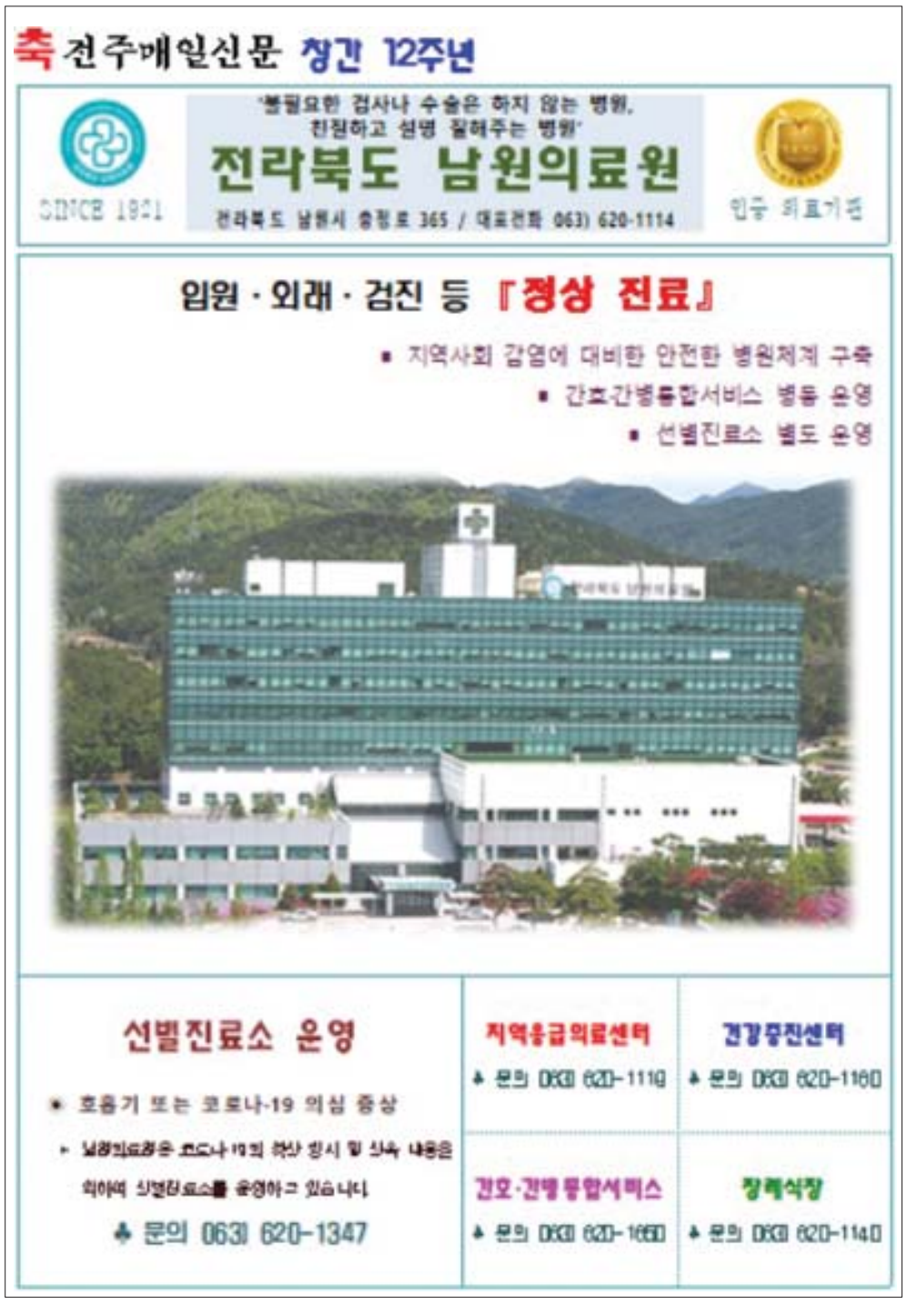
송지용 의장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재난극복에 동참하고자 구호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수해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최근 대전에서 개최한 정기회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북과 전남 등 특별재난지역 8개 시도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재난구호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추석명절, 전통시장 애용을'… 전주시의회, 모래내시장서 장보기

전주시의회 의장단 및 사무국 직원들은 추석을 앞둔 23일 전주 모래내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추석 장보기를 실시했다.

이날 강동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사무국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제수 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시장 상인들과 어려움을 나눴다.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이 많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강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지역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